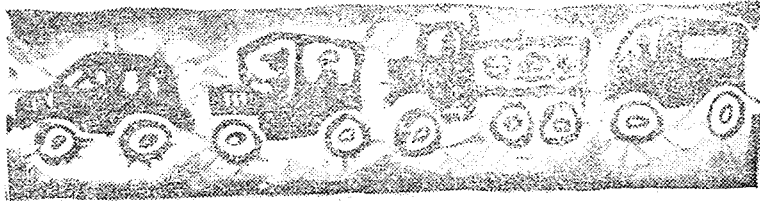


이 달의 주요 뉴스와 치협이 주변



□ 朴大統領, 全南·北 住民위해

朝鮮齒대에 移動 齒科診療車 하사

朴正熙 大統領은 지난 14일 朝鮮大學 齒大(學長·趙泳弼)에 이동齒科診療車 1대를 하사했다.

이는 全南·北 지역의 無齒醫村 치과 환자를 위한 무료진료에 쓰도록 하사된 것이다.

그런데 朴大統領은 68년 6월 8일 無齒醫村 및 벽지 주민들의 구강질

관 치료를 위해 10대의 이동齒科診療車를 전국市道에 하사한 바 있으며 67년 7월 10일과 76년 1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齒대에 소형과 대형 2대의 이동診療車를, 72년 4월 12일에는 延世齒대에, 72년 6월 4일에는 慶熙齒대에 각각 1대의 이동診療車를 하사한 바 있다.

□ GC 展示登錄 백만엔 送金

日本齒醫會選 代表·演士 파견 有名메이커 大舉 參加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齒協「建國 30주년기념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關心이 國內外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다.

日本 而至齒科工業(GCDIC·中尾敏男)에서는 12일 第一勸業銀行을 통해 제일먼저 이번 대회 齒科機材 展示를 등록, 전시장 사용료 1백만 엔을 齒協에 보내와 전시장 등록제 1호를 기록했다.

日本 齒科醫師會는 이 대회에 정식 대표를 파견키로 했으며 「而至」 이외에 日本 유명 齒材 메이커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는 지난 2일 渡日, 日本齒醫會 武石 부회장, 大阪齒醫會 奥野喜一 회장, 西山幸男 前京齒專 교수 등 日本齒科醫師會 임원 齒材메이커 중

□ 파노라마 X-레이 輸入 開放, 유니트 체어 6千弗로

保社部, 78년도 下半期 輸出入 要領 안화

保社部는 지난 7월 28일자로 「78년도 하반기 의약품등 수출입요령」을 告示 제22호로 공고, 치과용 「유니트 7천달러 이상」의 것만 轉入로 하던 것을 완화, 치과용 「유니트 체어 6천 달러 이상」으로 수입한 게 금액을 인하 조정하고 금수품이

역 등과 협의를 마치고 9일 귀국한 齒協 池憲澤 회장에 의해 밝혀졌다.

日本齒醫會는 日本齒醫學會 白敷美輝雄 會頭를 정식 대표로 구강의 과분야의 저명한 교수를 特講演士로 각각 파견키로 했으며 東京·大阪·名古屋齒醫會 등에서도 회원들이 대거 참가할 뜻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또한 機材展示會는 이미 등록을 마친 「而至」 이외에 日本 有名齒材 메이커인 森田, 松風陶齒, 吉田製作所, 東京齒科産業 등 4개사에서는 참가 신청을 했으며 三金工業, 長田製作所, 朝日덴트겐 등에서도 참가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日本醫齒業出版社에서는 同社 간행의 서적을 齒協에 기증 전 시키로 합의했다.

던 치과용 파노라마 X레이 장치에 대해 수입을 개방, 국내 미생산품 수입에 격정을 인화토록 했다.

保社部는 이번 의약품 등 수출입 요령 개정에서 치과용 「파노라마 X레이」의 수입을 완전 개방하고 종래 7천불 이상의 치과용 유니트

만을 수입허가하던 것을 치과용「유니트」에「제어」를 포함 6천불 이상의 것으로 수입하게 금액을 완화시켰다.

한편 醫藥品중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혈액 분획제중 금수품인「프라스마네이트」와 수입허가 품목인 인혈청 알부민에 대해 수입을 개방했으며 또 의약품 등의 수출을 권장하기 위한 수출의무액 부과에 있어 수출업체에 반기별 1만달러 이상 수출을 연간 3만달러 이상 수출로 수출액을 늘리고 제조업체 중 전년도 생산실적 10억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반기별 1% 이상 수출을 연간 2% 이상 수출로 그 의무액을 책정, 수출실적 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등의 수입자유화 문제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마련된 이 수출입 요령은 품질이 해당 규격에 적합하고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국내 생산 품목인 칼셀제 특허품 그리셀룰 구아야 콜레이트 및 구아야폴은 수입을 금지, 원료국산화를 촉진하므로써 연간 78만 6천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보사부는 또 고가 한약재로 품질, 가격의 격차가 극심, 유사불량품이 수입·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자등 승인 품목인 우황·주사 등에 대하여 수출입협회의 추천에 의거 보사부가 수입을 허가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 FKO理論 再定立한 유럽碩學

베른齒大 헤렌教授 特講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齒協「建國 30주년기념 종합學術大會」에 세계 碩學들이 特講演士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齒協에 의하면 유럽에서 頤學이며 臨床家이자 理論家인「P 헤렌」교수(스위스 베른齒大 교정과 주임교수겸 과장)가 이번 종합學術大會 特講演者로 확정됐다고 한다.

「臨床家を 위한 Activator Therapy에 있어서의 理論과 실제」를 주제로 特講演「헤렌」교수는 193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베른齒大의 교정과 주임교수로 유럽에서 많이 적용되는 교정치료 FKO(Functional Jaw Orthopadics) 理論을 제정립한 권위자이며 10여년간 연구 끝에 교정학 분야에서의 진단 치료를 위한「컴퓨터 시스템」을 고안해 낸 연구가로서 美國 등에서도 그의 강의는 인기를 끌고 있다.

인자하면서도 원만한 성품에 제자를 극진히 사랑하는「헤렌」교수는 67년부터 68년까지 베른齒大學

長과 유럽齒科 矯正學會 회장을 역임한 일도 있는데 특히 이번 來韓은 제자인 齒協 魯秀喆 국제이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病院 勤務교수 總長 任命

제 3 副院長이 齒科 지휘

서울大病院 定款

서울大學校病院 定款이 지난 4일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금명간 法人設立登記를 완료, 명실공히 법인으로서 정식 출발케 된다.

全文 58조 부칙 5조로 된 서울대학교 병원정관에 따르면 7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서울대학교 총장, 문교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보사부 차관, 서울대학교 병원장, 서울의대학장, 서울치대학장 등을 당연직이사로 하고 감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문교부 장관이 임명토록 하며 이사장은 서울대 총장이 되도록 했다. (제 9 조)

□ 制度研究委 규정 齒協理事會 통과

齒協은 12일 경기 이사회에서 制度研究 위원회 규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제28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기구등 제반제도 문제에 대한 연구 검토를 위임받은 齒協은 制度研究委의 구성을 위해 이날 이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全文 10조 부칙으로 된 이 규정에 의하면 동위원회는 협회의 기구 및 제반제도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건의토록 했으며 구성은 회무 또는 제도관계에 상당한 경력과 지식이 있는 인사 7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회장 중 1명이 감사는 심사이사가 맡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목적을 이룬 이후에 해산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① 각支部·學會會則 개인준에 관한 건 ② 수입자유화 문제 ③ 여비규정 개정 ④ 수련병원 신임위문제 등도 협의 했다.

또 원장은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 교원으로 1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원장 밑에는 제 1, 2, 3진료 부분의 부원장과 관리부 부원장, 기획 관리실장을 두되 제 1, 2부원장은 치의학에 제외한 임상 의학에 관해 모든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제 3진료부원장은 임상치의학의 교육연구 진료와 이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토록 했으며 제 1, 2, 3 부원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겸직 교육공무원중 이사회의 동의로 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또한 이정관은 임상교육위원회를
의대·치대·약대의 교무담당 학장
보와 병원의 각부원장, 기획관리실
장, 교육 연구부장, 원장이 임명하
는 4인의 겸직교원 등 13명 이내의

□ 옥토키인 共同購買 실시

機材商工協, 來來秩序확립 위해 損失 감소

대한齒科 機材商工協會(회장·金
載坤)에서는 齒協 및 市道齒科醫師
會를 통해 마취제 「옥토키인」의 공
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동구매하는 「옥토키인」은
2천켄으로 공급가는 3천원.

機材商工協 金載坤회장은 8일 이
번 마취제 공동 구매에 대해 『齒科
機材業界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육성을 통해 치과제로 공급
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회원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병원에 근
무할 겸직교원은 원장의 요청에 의
해 서울대 총장이 임명토록(30조)
했다.

손실을 감소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앞
으로도 마취제뿐만 아니라 기타 제
료 등도 수입, 공동구매를 통해 공
급할 것이라』고 했다.

金회장은 또한 『특정 메이커가
비대하게 되면 특정 품목이 독과점
되기 쉽다』며 『이번 공동구매가 모
메이커의 都賣價直販을 저지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齒科疾患者중 25%가 小兒齒科疾患

小兒齒科學을 基幹科目에

口腔管理는 幼齒부터 齒醫國試에 反映 주장

치과질환자중 약 25%가 소아치
과 대상자라는 중요성을 감안, 소
아치과학이 치과의사국가시험에 基
幹과목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
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대한 소아 치과학회 白東俊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민의
35%가 소아인구(만 15세 이하)로서
치과질환자 중 4분지 1을 차지하는
소아치과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
는 추세에 있고 幼齒관리가 부족하
면 영구치아는 건전치 않다는 엄연
한 사실에 구강관리는 유치로부터
시작해야 되며 14세 이하 아동들의
구강에 대한 모든 관리를 소아치과
에서 담당하는 등 이러한 여러가지
충분한 지식의 습득을 위해 소아치
과학은 반드시 기간 과목으로 설정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아치과학의 기간 과목 설

정 이유로 일반 치과의사들이 소아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기간과목 설정을 계기로
소아치과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소아의 구강 관리를 충실히 관리토
록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구
강계몽이 소아치과로 집중된다는

□ 한국 基督齒科醫師會 창립

회장 李春根씨, 명예 회장 金文祚씨

韓國基督齒科醫師會 창립 총회가
지난 6일 오후 7시 서울 동대문 감
리교회에서 열려 회장에 李春根(서
울치대 교수)씨, 부회장에 金基燦
(서울)·李基完(대구)씨, 감사에
朴成實·池光源씨를 각각 선출했다.

40여명의 회원과 가족, 친지, 일
반 교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 총회는 白承浩씨의 사회로 창
립 예배부터 진행됐는데 朴大善(前

점)을 강조했다.

白회장은 치의학을 제외한 다른
메디칼 분야에서는 소아과가 기본
과목으로 이미 설정돼 있다고 밝히
고 소아치과학의 기간 과목 설정을
위해 소아치과학회의 충분한 의견
과 검토를 거쳐 모든 치과의사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다각적인 방법으
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齒科技工所 모두 93個所로 서울市, TO制 완화 新規 46個所

保社部의 齒科技工所 TO제 완화
조치에 따라 서울시내에는 15일 현
재까지 李鍾道·朴龍淵·金榮九씨
등 3명의 치과의사를 포함한 46명
이 새로히 치과기공소 개설 인정을
받았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치과기공
소 TO제 완화후 46개소가 신규 개
설 인정을 받아 TO제에 따른 개설
인정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는데
기존 치과기공소 47개소와 함께 서
울시내에는 93개소로 치과기공소가
늘어났다.

한편 서울시 치과 기공사회는 금
명간 새로히 개설 인정된 대표자를
초청, 앞으로의 회운영 방안을 포
함한 당면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세대 총장)목사는 「작은 사랑」이
란 메시지를 통해 『모든 치과인들
은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그리스
도인으로서 새로운 자세를 확립,
내 주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생활
인이 되자』고 역설했고 李英武 국
가대표 축구선수의 신앙 강증이 있
었다.

창립 예배에 이어 열린 총회에서
쑤문 8장 22조로 편성된 한국 기독교

치과의사회 회칙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회칙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정회원, 그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치과계 종사자를 준회원으로 하는 법기독치과의료인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무·재무·홍보·선교·봉사·부녀부등 6개 부서에 6명의理事를 두도록 했다.

또한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고 명예 회장과 상임고문 목사는 들 수 있게 했다.

□ 民間常設기구 설치를 對處해야

齒科醫師數 絶對的 부족 현 需給추세 口腔保健推進 어려움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齒科醫師 수급 추세로는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 이후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치과의료의 혜택을 골고루 베풀고져 어떤 형태의 구강보건 기획을 구상, 立案하더라도 치과의사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원만한 구강보건 계획 추진은 어렵다고 분석, 민간상설기구인 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연세치대 李正석 교수가 최근 발표한 「치과의료의 현황과 개선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 1인에 대한 인구비는 1만 3천 3백 명으로 몇년 전과 비교해도 치과의사 인력수급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반면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치과의사와 대인구비가 놀랄게도 7만 8천 여명(의사 3천 8백명)을 상회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구강보건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수급계획에 앞서 大韓齒科醫師협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이 치과의료 수급에 대한 대책 검토와 조정은 물론 종합적인 치과의료 반에 걸친 조사연구 및 자문기능을

한편 11일 오후 7시에 모인 신임 회장단과 발기인즉 연석 회의에서 명예회장에 金文祥씨, 고문에 張春德목사, 李有慶씨의 26명을 추대하고 ▲ 총무 崔元德 ▲ 홍보 金圭炫 ▲ 재무 鄭在泳 ▲ 선교 白承浩 ▲ 봉사 徐致麟 ▲ 부녀 徐貞姬씨 등 6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년회비를 1만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9월 중순에 제 1회 헌신 초창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십분 발취키 위해 상설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교수는 치과의사와 의사의 이

상적 비율은 1대 5 정도인데 현재 우리는 지역에 따라 1대 20의 엄청난 분포를 보인 곳도 있고며 이는 구강보건 향상 전망이 요원함은 물론 암담하다는 현실을 표현한다면서 치과인력 수급계획을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협의,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李교수는 또 치과의학 교육의 방향 설정에도 언급, 교과 과정을 ▲ 임상과 관련된 생물학 및 사회과학의 이해 촉진 ▲ 구강진단, 진료계획 및 임상에 있어서의 환자중심의 접근 시도 ▲ 치의학 전반에 걸친 균형있는 임상수련 ▲ 지역사회 구강건강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책임감을 강력히 주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인력수급 계획은 별 표와 같다>

齒科醫師와 醫師의 분포율

	齒 醫 數	齒 醫 人 口 對 比	醫 師 數	醫 師 人 口 對 比	齒 醫 對 醫
7 2	2554	12331	16991	1852	6.65
7 3	2463	12768	16982	1851	6.89
7 4	2422	12978	15722	1999	6.49
7 5	2595	13364	16800	2064	6.47
7 6	2740	13426	17718	2025	6.47
7 7	2911	12522	18803	1932	6.46
7 8	3109	11911	20024	1849	6.44
7 9	3357	11209	21336	1763	6.36
8 0	3684	10374	22546	1695	6.12
8 1	4020	9660	23796	1632	5.92

□ 6.9行事 盛了

各 齒科醫師會, 健齒兒童 등 施賞

6월 口腔保健 계몽의 달을 맞아 6.9行事가 지난 9일 서울齒醫會의 제33회 구강보건상 시상식에 이어 光州·馬山齒醫會에서도 기념 행사를 거행, 일반주민들의 口腔保健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光州市 齒科醫師會(회장·金明起)는 지난

달 9일 교육구청 회의실에서 「健齒兒·健齒母子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선 건치아 최우수상이 김 미승양(광주 용봉국민학교 5)에게, 건치 모자 최우수상은 임 옥희·양 성주 母子(광주 학강국민 학교 1)에게 주어졌다.

同會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간 9만 5천 3백1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 이날 시상한 것이다.

馬山齒科醫師會(회장·李仁昌)도 지난달 9일 마산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내외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갖고 구강보건유공자에게 마산시장·마산시의회장 감사패·공로패 등

□ 「豫防과 齒科醫師 동향」 主題

亞太會 79年 4월 「쿠알라룸푸르」서

제 9 차 아시아·太平洋 齒科會議 (APDC)가 79년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豫防과 齒科醫師의 동향」이란 主題를 갖고 개최된다.

亞太齒科연맹 (APDF)에서 최근 齒協에 통고해온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4월 22일 = 회원국 대표회의(9시 30분~오후 4시), 齒科機材전시장 개관식(오후 5시), 대표 콕텔 파티(오후 7시 30분)

◇ 4월 23일 = 등록(전 9시~후 5시), 회원국 대표회의(전 10시~후 5시), 환영 파티(후 7시 30분)

◇ 4월 24일 = 등록계속(전 8시~9시), 개회식(전 10시), 치과 교육 및 면허·치과공중 보건상임위원회(후 2시~5시), 학술회의(후 2시~5시), 말레이시아 문화의 밤(후 7시 30분~8시)

◇ 4월 25일 = 학술회의(전 9시~12시), 페널디스카슨 ① 齒科醫學 교육과 면허제도 ② 齒科公營保險(전 9시~2시), 학술회의(후 2시~5시)

◇ 4월 26일 = 학술회의(전 9시~12시 30분), 회원국 재무회의(후 2시~5시), 학술회의(후 2시~5시), APDC 연회(후 7시 30분~0시)

◇ 4월 27일 = 회원국대표회의(전

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구강보건 관리학교와 전치아동 등을 표창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 관리학교 = 마산 산호국민학교 ▲ 우수 관리학교 = 마산 합포국민학교·울산 양산국민학교 ▲ 장려상 = 마산 합성국민학교·함안국민학교 ▲ 최우수 전치아 = 김종연 ▲ 우수 전치아 = 김 미경·최은희 ▲ 장려상 = 김 정열의 32명

9시~10시), 폐회식(전 11시), 신임 임원진 집행회의(후 3시)

□ 브르샤드 테크닉 變化提示 金一奉 矯正研究팀 3일 歸國

金一奉치과 교정연구소의 金一奉, 朴永淑, 金貞子, 金基赫, 姜九漢, 成在賢씨 등 6명의 회원들은 미국 하와이 힐튼빌리지에서 가진 「브르샤드테크닉」 연수회를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열린 브로샤드 테크닉은 에드반스코의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 미국, 필리핀, 일본, 홍콩 등 5개국의 40여 회원이 참석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갈포드 브르샤드, 크리프트 브르샤드, 조지시아 등 교정학의 저명인사 3명이 담당했는데 이들은 재래의 브로샤드 테크닉에서 많은 변화를 제시했으며 특히 Bracket Position과 Finishing Arch Wire에 대하여 종래보다 많은 변화를 시켰고

□ 國際의인 새 록 아타취먼트 開發

特別施設 필요없어 누구나 施術容易

尹漢哲씨 6년 刻苦 끝에 美·日에 特許申請

지금까지 개발된 재래식 아타취먼트의 공통된 결점을 해결키 위해 록·아타취먼트(Lock attachment)를 개발, 임상실험에 성공함으로써

Tonque와 Heabgeon에 대한 많은 문제를 다루었다고 회원들은 밝혔다.

한편 이번 회원들의 체류기간 중 재미 한국교포는 물론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와카이씨의 따뜻한 환대에 어려움없이 귀국했다고 말하고 교정학에 관한 5백여장의 슬라이드가 보충했다고 밝혔다.

□ 지부장에 許泰雲씨 서울齒大 同窓會

釜山市 支部 臨總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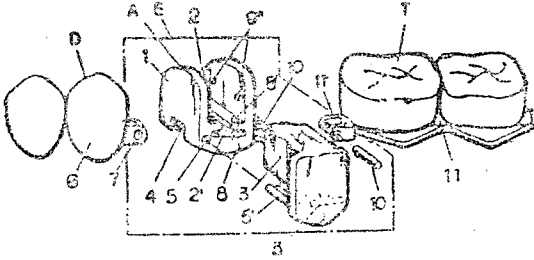
서울齒大 同窓會 釜山市 支部는 지난 1일 개최된 임시 총회에서 許泰雲씨를 만장 일치로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서울齒大 同窓生 徐永圭회장, 劉東洙 총무, 日本 마스도시 齒醫會 「도다」 회장, 「소리다」 총무 등 내빈다수와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 총회에서 鄭昭永 총무는 『현 支部長인 宋亭普씨가 신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임시 총회를 열게 됐다』는 경과 보고에 이어 지부장 보선에서 許泰雲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는데 신임 許支部長은 취임 인사에서 『잔여 기간 여러 동문께서 밀어주고 깨우쳐줘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무사히 임기를 마치도록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동창회 이름으로 20만원을 서울齒大 同窓會에 헌납하고 부산시 동문의 협조금 등 80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치과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 尹漢哲 치과의원장은 고리없는 새로운 구부의치 착탈 아



금속 프레임과 아타취먼트의 연결된 내부 구조도

아취먼트를 개발, 발명특허 5704호를 획득했는데 종래의 아타취먼트의 공통된 결점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한 것으로 ▲ 끼고 뺄 때 支臺齒의 손상이 거의 없고 ▲ 자물쇠 식으로 부착되어 있어 음식물을 씹을 때 전혀 동요되거나 빠지지 않고 ▲ 구강안에 남아있는 支臺齒를 깨끗히 청소하기 쉽고 ▲ 고리가 없어 의관상 보기가 좋고 끼고 빼는데 간편하며 ▲ 특수 시설이 필요없고 제작 과정이 간편하여 교장도 없고 ▲ 어느 치과에서도 시술과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체이식 아타취먼트, 시가식 아타취먼트, 이노우식 아타취먼트 등의 공통적인 결점인 착탈 불편과 특수시설이 있어야만 시술이 가능한 것, 지대치의 쉬운 손상, 적용범위의 제한 등을 완벽하게 보완한 것이라고尹원장은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록·아타취먼트를 케네디 분류법에 의거, 클래스 1의 경우는 기성 치아와 아타취먼트와 견해 있기 때문에 기성치아를 頰側으로 밀면 支臺齒 크라운의 원심면이 치은쪽으로 가까이 돌출된 부위와(수평으로 舌側과 頰側 방향으로 뚫린 구멍) 기성치아에 부착되어 있는 패징핀(pin)이 좌우로 왕복함에 따라 의치를 자유자재로 뺄 수 있다는 것.

한편尹漢哲 원장은 지난 72년부

터 관계문헌을 모두 수집하고 실제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 지난해 임상 실험단계에 이르러 특허 출원을 했었고 앞으로 기계화가 되면 더욱 정밀화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 3일

□ 공동懸案問題論議

齒協·서齒 任員連席회의서

齒協은 지난 20일 서울齒醫會와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현안 문제에 대해 상호의견 교환을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서 齒協은 수입 사항 처리를 비롯 새마을 齒科診療院 운영 경과 등을 보고, 효율적인 회부 수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서울齒醫會 朴性高회장은 全齒科界의 단합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선 새마을 齒科診療院 운영문제를 중점 논의 78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담 치과의사들을 위촉하고 오전만 서울齒醫會가 1명의 회원을 파견 진료기로 합의했다.

□ 醫療奉仕評價회의

市, 實績低調따라

서울市는 醫療奉仕事業의 診療實績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 이 진료권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班常會를 통한 대민계몽사업 강화와 各區廳 및 일선洞事務所 담당 공무원

에는 미국에, 2월에는 일본에 각각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尹원장은 이번 새로운 국부의치 착탈 아타취먼트 개발을 계기로 우리도 국외만 신경을 돌리지 말고 용기를 갖고 꾸준한 노력으로 분발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본보기가 이번에 마련된 것이라면서 내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특허 박람회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단하나의 불편한 점은 前齒部에는 시술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들에게 연 4회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市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 4분기 동안에 실시한 醫療奉仕事業의 診療實績을 평가한 결과 通院診療實績이 入院診療 實績보다 너무低調하다고 지적, 齒科醫學會를 비롯 醫師·漢醫師 등과 合同으로 정기적인 평가회의를 가질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市당국은 醫療奉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수혜 대상의 명부를 비치, 診療券 교부에 신속·정확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봉사 진료 안내서를 수혜 대상자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지난 1, 4분기 동안에 실시한 醫療奉仕 診療實績을 보면 入院의 경우는 연간 4천 5백 10명의 診療目標에 1천 2백 99명을 入院시킨 반면 通院診療는 연간 1만 8천 50명의 目標에 1천 3백 83명을 診療했다.

□ 보건소 근무 齒科醫師 手當

保社, 來年부터 37% 인상 34만원線

保社部는 내년부터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 의사와 관의 의사에 대해서 3급 을류에 해당되는 공무원 기본 보수 외에 월평균 24만 8천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월평균 34만으로 약 30% 내폭 인상 지급키로 했다.

보사부가 최근 전국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인력을 보다 손쉽게 확보하고 충원된 요원들은 항구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인상마련했는데 약사·병리사·X선사 등은 공무원 3종 잡급직에 해당하는 기본 보수외에 월평균 11만 6천원, 간호원은 직급별 공무원 기준보수외에 월평균 7만 5천원씩 인상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보사부의 보수 인상 지급 계획안은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정부 종합 예산안과 함께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 문제는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 내년초부터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 劉英浚씨를任用

齒協, 새마을齒科診療院에

齒協은 새마을齒科診療院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월 1일자로 劉英浚씨를 촉탁의사로 임명했다.

劉英浚씨는 77년에 서울齒大를 졸업한 회원으로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 1백 41만 診療受惠

3월말 醫療保護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 사이에 연인원 1백 41만 1천 6백 38명의 환자가 齒療保護사업에 의해 진료혜택을 받았다.

保社部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에 완전 無料환자가 75만 25명, 일부 無料환자가 66만 1천 6백 13명(연인원)이 의료보호제도에 의해 의료시혜를 받았다.

이를 月別로 보면 1월이 29만 4천 8백 6명, 2월 45만 2천 8백 66명, 3월에 66만 3천 9백 66명이 진료를 받았다.

保社部는 금년도에 완전 無料 1백 65만 8천 9명, 일부 無料 6백 22만 4천 3백 26명 등 모두 7백 88만 2천 3백 35만명의 醫療保護대상자를 진료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 醫療保險 受惠 23%로

79년 下半年期 적용事業場 확대

保社部는 내년 하반기부터 事業場의 의료보험 적용대상 기준을 현재의 5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3백인 이상까지로 확대시킬 계획 아래 구체화 준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부터 실시 확정된 公職員 및 사립 학교 교직원 3백 62만명과 사업장의 의료보험 수혜자 3백 69만명 등 7백 58명에 대한 의료 보험으로 총인구 3천 7백 60만 5천명의 20%에 해당하는 인구에게 의료 보험의 혜택이 베풀어진다.

한편 保社部가 작업중인 3백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이 확대되면 의료보험受惠者는 8백 58만명으로 늘어나 전체 3천 7백 60만 5천명, 人口의 23%가 醫療保險혜택을 받게 된다.

□ 純金뺨지製作 齒協 신청 接受 一部(120個) 配付

齒協은 13일 會員 純金뺨지를 제

작키로 하고 각市道 支部를 통해 접수를 받아 왔는데 一次로 120개를 申請받아 製作配付했다.

그런데 同 金뺨지는 순금 3.5%에 가격은 6,600원이다.

齒協의 이같은 조치는 慶南齒醫會 등 일부지방 齒醫會서 회원 뺨지 제작을 의뢰해 왔기 때문이다.

□ 無料診療 2차 實施

大韓齒友會서

大韓齒友會(회장·文洪祚)는 매년 봉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9월 2차에 걸쳐 무치의촌 무료 진료 사업을 펴기로 했다.

大韓齒友會는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봉사하는 齒科醫師像을 구현키 위해 처음으로 8월에는 인천 지방무치의도에서 9월에는 강원 무치의 산간지방에서 각각 무료 진료 사업을 펴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기 이사회를 매월 23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 醫療人 법정 出頭

大法院 협조 指示

大法院은 최근 醫療人이 민형사 소송 사건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두하는 경우, 각별히 협조토록 전국 각급法院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法院은 이차에서 의료인들이 법정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심문조치 또는 심문시간의 최소한 단축 등으로 협조할 것을 각별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大法院의 조치로 치과 의사를 포함한 진료인원은 지금까지 겪었던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을 덜게 됐다.

— 各 學 會 消 息 —

□ 顎關節 기능부전
口腔外科學會集談會

대한口腔외과학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서울치대 3층계단 교실에서 월례집담회를 가졌다.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집담회에서 서울치대 金宗源 교수가 악관절 기능부전증에 대해서 8군 구강외과과장 렛신소령이 Orthognatic Surgery에 관해 각각 강의를 담당했다.

□ 임프란트 臨床研修次 渡日
8월중 齒科임프란트學會代表

日本임프란트 臨床研究會 78년도 總會 및 學術大會가 오는 8월 26, 27 양일간 日本 名古屋에서 개최된다.

이 總會에 참석키 위해 대한齒科 임프란트學會 대표단 12명이 오는 8월 24일께 出國할 예정이다.

이들 일행은 약 1주간 예정으로 渡日하는데 日本大學주최 研修會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대표단 일행 명단은 다음과 같다.

▲ 柳錫錫 金光鉉 金鴻基 寄昌德

池光源 崔光哲 李虎容 文洪祚 趙載佑 金一京 金有鳳.

□ 學術集談會 개최
口腔保健學會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金鍾培)는 지난 30일 오후 7시 서울치대 2층 세미나실에 『구강보건개발의 목적』에 대한 학술집담회를 가졌다.

이날 집담회의 연자는 국립정신병원 치과과장 金南奎 박사가 담당했다.

□ 咬合理論·外科的 處置
公職齒醫會·補綴學會 공동主催
6일 오후 6시 서울齒大서 特講

대한 보철학회와 공직치과의사회 공동 주최로 지난 6일 오후 6시 서울치대 3층 계단교실에서 미국 남가주대학(U. L. C.)의 「언베스트·프란시스·밀러」교수를 초청, 咬合理論의 外科的 處치에 관한 특강을 가졌다.

1백여명의 회원이 참석, 성황을 이룬 이날 특강에서 밀러교수는 요즘 미국에는 부정교합에 관한 외과적 처치를 구강외과·교정·보철등이 팀을 구성, 환자에 대한 공동자료 분석은 물론 공동으로 수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최신교합 이론과 부정교합의 외과적 처치에 대해 3시간동안 슬라이드강좌가 계속됐는데 밀러 교수는 남가주대학교수 및 구강외과 전문의로서 미국 치과계의 저명 인사이다.

□ 美國口腔學會參觀記 발표
口腔病理 夏季學會서 趙漢國씨

大韓口腔病理學會(회장·趙漢國)는 지난 27일 오후 7시 金東順 前 치협회장, 朴性高·朴允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의장과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북악파크 호텔에서 여름 학술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회는 趙漢國 회장의 미국 구강병리학회 참관기에 대한 보고와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는데 趙회장은 현재 미국의 구강병리학회는 학술회, 집담회 등 학술강좌 때에는 반드시 수강료를 본인 부담으로 수납한 후 수강한다고 밝혔다.

또한 金東順 前대한 치과의사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구강병리학회 회원들이 치과계에 여러명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기해 더욱 노력하여 학회 발전에 진작을 기하자』고 말했다.

□ 공직 치과 의사회
학술 강연회

금번 공직치과의사회에서는 미국 미취건대학 occlusion Department의 chairman으로 계시는 Prof. Major M. Ash의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Ash 교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Occlusion”이란 책의 저자이며 occlusion에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특히 한 성수 교수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강의를 하였다.

특별 강연 제목

“OCCLUSAL BITE PLANE
SPLINT”

「교합상의 원리 및 그 제작법」
(slide 및 video type 영상도 했다)

장소: 서울대 의대도서관 시청각 교실

시일: 1978. 7. 21. 金요일 오후 7시

등 총 무료진료 인원 103,725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주었다.

釜山市齒科醫師會

理事會開催

日時: 1978年 6月 13日 上午 8時

場所: 本會 會議室

參席者: 金沅佑 李周衡 鄭昭永
李元容 金鶴大 崔德浩
金善一 李光國 張光祥
孫光雄 (위임 김 봉호)

案 件

1. 부산시 진치 아동 표창식 건
78년도는 131개교 아동 402887명
을 10일간에 걸쳐 本會 會員(치과
의사) 265명이 동원되어 구강 검사
를 실시한 결과 131명의 學校 단위
健齒兒童 선발 施賞式을 갖게 됨에
(6月 24日 시민회관 소강당) 구강
검사 결과 및 시상식 준비에 대하여
증간 결산 보고.

(1) 구강 검사시 몇몇 회원의 성의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학교
가 있음. <회원 여러분의 절제적
인 협조 요망>

(2) 교육감 수상자 선정 건
회장단 총무, 치무이사에게 위임

(3) 시상식 스폰서 관계 건
全 理事진이 시상식 준비에 힘쓰
기로 함. 최대의 부상품을 준비
키로.

(4) 모범 양호 교사 추천 건
2. 부정 의료 행위자에 對한 件
= 中區 會員中 高발 접수 사항으
로 =

6.9行事를 마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정화 및 검찰권 발
동 등 다각도로 연구하여 실천한다.
“全 會員의 자체 정화에 힘써 줄
것을 바랍”

3. 체육大會 및 野外 慰安會 開
催 件

(1) 全 會員이 參席하여 하루를 즐
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한다.

(2) 각 구별(40명: 1개팀)로 구성
하여 축구 대회를 갖는다.

① 서구·영도구·동구 (51명) 1팀

② 중구 (43명) 1팀

③ 남구·북구·동래구 (44명) 1팀

④ 부산 진구 (43명) 1팀

※ 參席會員 全員에게 각종 상품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대로 준비.

(3) 慰安會에 對하여 부족함이 없
게 단체버스를 이용 등 차기 理
事會에서 세부 계획을 논의한다.

4. 齒科 器材 및 재료 共同 구입
件

7月경 수입기재 완화로 日本으로
부터 공동구입할 수 있도록 연구한
다.

□ 불우아동 양육비 전달

— 감천동 성동원 고아 5명에게

6月 1日 본회에서 매달 지원하고
있는 감천동 소재 성동원 고아 5명
(김익기, 마인숙, 강현희, 이영희,
김경희)에게 78년도 6月分 양육비
조로 성동원 구좌(상업은행 서지점)
로 25,000원(1인당 5,000원씩)을
송금하였으며 성동원에서 감사의
편지가 왔다.

□ 國民學校 兒童 口腔검사 실시

78.6.1~6.10 (10日間)

78년도 國民學校 兒童 口腔검사
를 6月 1일부터 10일까지(10日間)
부산시내 全지역 아동 402,887명을
대상으로 부산시 치과의사회 全 齒
科醫師가 동원(연인원 265명)되어
10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各學校 代
表健齒兒童을 선발하고 발치, 치료

□ 第23回 釜山市 健齒兒童 表彰式 盛了

1978. 6. 24. 부산 시민회관에서

지난 6月 24日 下午 2時부터 釜
山市 民會館에서 부산시내 131개
國民學校 代表 健齒兒童 131명과
各學校 양호 교사, 학부모가 모인
가운데 釜山市 최우수 健齒兒童 선
발심사가 鄭昭永 심사 위원장의 지
시에 의거 심사의 6명이 1時間 30
分 동안 3회에 걸쳐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下午 3時 30分 具龍鉉 부
산시 교육감과 남영우 釜山市 副市
長, 김 경수 釜山市 藥師會長을 비
롯하여 內外 귀빈, 학생, 교사, 학
부형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施賞
式이 거행되었다.

□ 定期 理事會 開催

1. 日 時: 1978年 6月 28日 08時

2. 場 所: 本會 會議室

3. 參席者: 金沅佑 鄭昭永 李元容
金鶴大 李光國 金善一 孫光雄
李勝星 姜宗錫 金昇五 李亭卓

案 件

1. 第23回 釜山市 健齒兒童 表彰
式件

총경비 1,043,000원의 규모로 실
시하였으며 특히 협조한 단체 및
기업체는 동아 제약, 럭키, 진양,
모나미, 동양 직물, 근화제약 등이
였다.

2. 親善 體育大會 및 會員 慰安
會 件

(1) 총예산 1,300,000원 정도의 규
모로 개최한다.

(2) 各 區會長은 선수 名單 제출및
많은 會員을 參席케 한다.

(3) 차량은 부산역→조방앞→서면
양정→수영→송정

(4) 本會가 開催하는 行事에 非協助的인 業體에 對하여 別도 방법을 연구하여 규제한다.

3. 醫藥品 共同 구입 件

동아제약, 유한양행의 의약품을 1차적으로 共同구입하여 보험 환자 및 일반환자에게 원내 투여토록 한다.

(신용 협동조합을 통하여 구입토록 연구한다)

4. 세무 기장 작성 및 영수증 발

□ 豫算 2백 70여만원 確定

江原齒醫會 定總, 醫療不條理 除去 다짐

江原道齒科醫師會 제27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17일 영월읍 문화회관에서 池憲澤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이경훈 영월군의사회장, 박찬규 영월방송국장, 전광란 영월군약사회장 등 영월지방 의약인등 다수의 내빈과 회원 및 회원 부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올 예산안 2백 70만 4천 2백65원을 원안

부를 철저히 실시하여 세무 행정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각 회원에게 제공한다.

5. 機資材 수요량을 파악 機材委員會를 통하여 구입토록 한다.

6. 의료 보험 및 기자재 문제 등 회보를 최대로 활용한다.

7. 원호 성금 모금키로 결의

(1회월당 5,000원씩 7월 10일까지 모금)

대로 확정시켰다.

朴義世 총무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34명의 회원 중 22명이 참석했는데 宋鉉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無齒醫郡 해소에 진력하자』고 전제하고 『앞으로 더욱 국가의 무료 진료 사업과 구강보건 사업에 적극 협조하자』고 강조했고 池憲澤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축사

에서 부부동반 총회는 치과계의 총화를 다지는 거보로서 다른 지부에도 권장할만하다』고 치하하고 『건국 30주년 종합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들의 단합된 힘과 신장을 널리 외부에 알리자』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날 총회는 ▲부경의료업자 색출 ▲의료 부조리 자체 정화 ▲회원 동태 파악 ▲道齒醫회지 발간 ▲무치의촌 진료 사업 ▲보수교육 등 사업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1인당 월회비 6천원으로 편성된 2백 70만 4천 2백 65원 규모의 예산안을 항목 조정은 차후 이사회에 일임하는 한편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총회는 道齒醫會 발전에 공이 많은 ▲南宮奎(홍천), 沈星玉(원주), 金成河(춘천), 張明河(주문진), 李升漢(영월)씨에게 공로패를, ▲宋仁玉(신안 치과기공소 대표), 金俊權(중의계약 강원 출장소장)씨에게 감사패를 증명했다.

□ 海外文獻抄錄 □

병독성과 연관되는 Streptococcus mutans의 항원

— 항체 생산 —

Streptococcus mutans에 의해 생산되는 Glucosyltransferase (GTF), Lipoteichoic acid (LTA), Dextranase와 fructosyltransferase (FTF)들은 치아우식을 발생시키는 dental plaque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실험은 S. mutans의 세포나 혹은 GTF, GTF-LTA, 혹은 GTF-LTA-FTF를 함유하는 Cell-free preparation으로 면역시킨 동물의 항혈청내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는지를 알아보았다.

GTF와 FTF에 대한 항체는 ¹⁴C-labeled된 다당류 합성의 억제에 의해서, dextranase에 대한 항체는 dextran으로부터 형성되는 환원당의 감소로, 그리고 LTA에 대한 항체는 passive hemagglutination(HA) titre에 의해 확정하였다. Serotype a-e의 세포에 대한 토끼항혈청은 GTF를 억제하였고(10~95%) LTA에 대해 HA titre를 보였다(>320). Anti-FTF activity는 Serotype b, c, e의 세포들에 대한 항혈청에서 볼 수 있었다. 동일한 S. mutans strains들의 세포들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높은 Cell-

agglutination titre의 항혈청을 생산하였으나 GTF 활성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 Strain 6715(Serotype d)의 세포들로 gastric intubation에 의해 면역시킨 영장류의 항혈청은 anti-LTA 효과는 있으나 anti-GTF효과는 없었다. 뒤이은 피하면역에서는 GTF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었다. 대조적으로 Strain 6715의 Cell-free GTF-LTA preparation을 식수를 통해 주입한 germ-free rats에서는 anti-GTF 효과는 보였으나 anti-LTA 효과는 없었다. Strain 6715에서 얻은 Dextranase는 동일한 Cell preparation에 대한 항혈청에 의해서 70% 억제되었는데 이 항혈청은 GTF 활성을 90% 억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immunogenic preparation의 형태와 주입경로에 따라서 상이한 항체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항혈청내 특정한 항체 활동을 앞으로써 항치아우식 백신의 구성요소를 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치대 구강미생물학교실 김각균)